

일본연구센터 동정(2010.8.1~2011.2.28)

I. 학술행사

1. 국제 포럼

◆ “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 문학”

본 연구센터는 HK사업의 핵심연구 중 하나로 <식민지 일본어 문학·문화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일환으로서 2010년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 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의 일본어문학 연구자들이 참가해 국내외의 식민지 일본어문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어 문학에 대한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발표자	발표내용
천광명(陳芳明, 대만정치대학 대만문학연구소 소장)	식민지적 틀에서 동아시아적 시각으로-대만문학 연구에 관한 회고
류춘잉(劉春英, 동북사범대학 일본연구소)	'만주'시대에서의 '신경(新京)'의 일본인작가
정병호(고려대)	한반도의 식민지 <일본어문학> 연구와 과제-식민지 <일본어문학>의 국제적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김청균(본센터)	한일병합 전후의 일본어 잡지 속의 한국사관 -일본어 잡지 『조선』과 『조선공론』의 역사물을 중심으로
이승신(본센터)	이광수의 이중어문학 고찰
유재진(고려대)/김효순(본센터)	한국모더니즘 문학과 일본어 글쓰기 -정지용의 일본어 시작(詩作)을 중심으로
김계자(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와 잡지 『문예수도』
윤대석(명지대)	1930년대말 '피'의 담론과 일본어문학

송혜경(본센터)	사타 이네코(佐多稲子)의 조선체험과 이언어(二言語)상황 인식
다루미 치에 (요코하마국립대 유학생센터)	1930년대 일본문학에서의 '야만'으로의 공명을 둘러싸고
유수정(본센터)	'만주국' 초기 일본어문단의 <만주문학론>
이케우치 데루오(국학원대학 명예교수)	'만주문학'과 일본문단-일본인 작가를 중심으로
기무라 가즈아키(리쓰메이칸대학 명예교수)	남방징용작가의 언설-〈자바〉를 중심으로
히비 요시타카(나고야대학 문학부)	경역(境域)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일제 아메리카 이민의 일본어문학

◆ “전쟁과 평화로 보는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지형”

본 연구센터의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공동체 연구팀>은 현재 경제영역이 선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담론, 그리고 정치와 문화 및 역사적 배경 등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한국적 정체성을 재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전쟁과 평화로 보는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지형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동아시아와 몽골의 전쟁·평화·공동체론에 관한 한중일 학자 7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자	발표내용
마쓰기 다케히코(오카야마 대학)	무력과 국가형성-전쟁의 고고학으로 본 4-6세기 한반도와 일본열도
김보한(단국대)	왜구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조선의 변용
김시덕(본센터)	동아시아 평화구축의 어려움-임진왜란 화의교섭 관련자들에 대한 삼국의 평가를 통해
고명수(덕성여대)	쿠빌라이 정부의 남해(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변영-몽골시대 전쟁, 평화, 팍스몽골리카(Pax Mongolica)의 시나리오
오민(화동정법대학)	한국 독립운동 100년 문학 서사-중국 한인(韓人) 소재의 소설을 중심으로
방광석(인하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사건과 한국병합
강철구(본센터)	EPA전략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시각

2. 콜로키움

본 연구센터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명한 일본연구자를 초청하여 연구인력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일본의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와, 모리타 마사야 간사이 가쿠인대학 교수, 그리고 중국 청화대 일본연구센터의 리팅쩌양 교수, 왕종쩨 교수가 초청되어 왕성한 연구성과를 나누었다.

일시	2010년 8월 23일	
발표자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학 교수
제목	독도(다케시마)연구에 있어서 제3의 시각	

일시	2010년 11월 2일	
발표자	모리타 마사야	간사이 가쿠인대학 교수
제목	사이카쿠(西鶴) 문학의 정보원-근세 해운사와의 관계로부터	

일시	2010년 12월 17일	
발표자	리팅쩌양	청화대 일본연구센터 부소장
제목	일중관계의 충돌과 화해	

일시	2010년 12월 17일	
발표자	왕종쩨	청화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제목	1930년대 일본의 중국인식	

3. 특별강연회

본 연구센터는 일본연구의 전문 연구자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 관련분야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시	2010년 10월 20일	
발표자	김수한	전 국회의장
제목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일시	2010년 11월 4일	
발표자	해리 하루투니언	전 뉴욕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
제목	일본의 전후망각과 국제사회로의 진입	

4. 일연포럼

본 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일연포럼은 학내의 일본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취지 아래 개최되고 있다. 일연포럼 주최에 대한 정보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소개되는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일시	2010년 9월 13일	
발표자	황영희	본센터
제목	일제강점기 일본어, 그 후 60년 -연변지역과의 비교	
	토론: 기구치 마사키(菊池正記, 백석대) 서운순(徐潤純, 고려대)	

일시	2010년 10월 6일	
발표자	김인덕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제목	일제시대 재일한인의 민족운동	
	토론: 유지아(중앙대) 이승희(중앙대)	

일시	2010년 11월 25일	
발표자	혼다 오사무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제목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토론: 현대송(국민대) 김시덕(본센터)	

일시	2010년 12월 13일	
발표자	강철구	본센터
제목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경제적 접근	
	토론: 소순창(건국대), 송석원(경희대)	

일시	2011년 1월 17일	
발표자	유중현	전 대사 <요코하마 총영사 역임>
제목	통신사의 길을 따라 - 한성(서울)에서 에도(江戶)까지	
	토론: 김문자(상명대), 김시덕(본센터)	

일시	2011년 2월 8일	
발표자	신장철	승실대 교수
제목	한일해저터널건설 논의의 현주소와 해결과제	
	토론: 차일근(대진대), 강철구(본센터)	

5. 월례발표회

HK 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 연구팀에서는, 일제시대에 한반도에 와있던 일본인을 대상으로 1908년에서 1911년에 걸쳐 경성에서 간행된 일본어 종합잡지 『조선(朝鮮)』의 <문예란>에 대한 집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도 후반기의 월례발표회 실적은 다음과 같다.

일시	월례발표회 내용
2010년 9월 20일	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토론)
2011년 1월 25일	임종국 『친일문학론』(강독)
2011년 2월 15일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글쓰기』(강독)
2011년 2월 28일	윤대석 『국민문학론』(강독)

II. 연구기관 교류

2010년 8월 21일에 본 연구센터에서 국내일본연구기관장 연석회의가 열렸다. 2008년도 제1차 사회과학 분야의 일본연구자 워크숍과 2009년도 제2차 인문과학분야 일본연구자 워크숍의 성과를 잇는 이번 회의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한국 내 일본연구의 현황과 각 기관별 연구사업을 소개하고, 향후를 전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내의 일본연구를 이끌어 가는 기관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본 연구센터와의 학술교류 협정체결식도 진행되었다. MOU체결을 한 국내의 일본연구기관은 아래와 같다.

기관	교류협력내용	일시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MOU 체결	08.21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MOU 체결	08.21
단국대 일본연구소	MOU 체결	08.21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MOU 체결	08.21
세종일본연구센터	MOU 체결	08.21
전남대 일본문화연구센터	MOU 체결	08.21
중앙대 일본연구소	MOU 체결	08.21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MOU 체결	08.21
중국 청화(淸華)대학교	MOU 체결	12.17

Ⅲ. 연구센터 간행물

본 연구센터는 정기간행물인 <일본연구>이외에도 일본연구 수준의 제고를 위한 <일본연구총서>, 심도 있는 일본이해를 위해 고전을 번역·출간하는 <일본명작총서>, 글로벌시대의 일본연구를 선도해갈 <현대일본총서>등 다양한 총서를 기획하여 발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일본연구총서 6권, 일본명작총서 5권을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했으며, 2008년부터 도서출판 문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제1차로 향후 100권을 출간할 예정이다.

◆ 일본학 총서

일본학 총서는 일본의 문화, 역사, 문학, 어학, 교육 등에 관한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2011년 2월 현재 16권이 간행되었다.

◆ 일본명작총서

[일본명작총서]는 한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간행된 적이 없는 모노가타리(物語), 요요쿠(謡曲), 교겐(狂言), 하이쿠(俳句)등 일본의 고전시리즈를 번역·출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1년 2월 현재 14권이 간행되었다.

◆ 현대일본총서

현대 일본의 어문학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환경, 교육 등의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새롭게 기획된 시리즈이다.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한 분야인 현대 일본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할 수 있는 책들로 기획되어 있다. 2011년 2월 현재 6권이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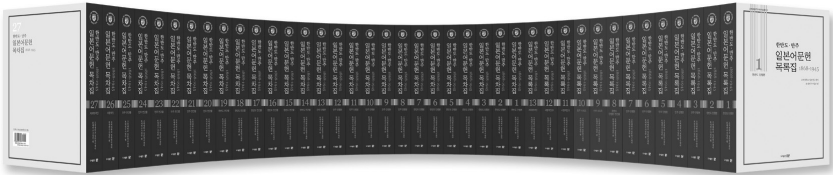
◆ 토대연구사업단에서 『한반도·만주 일본어문헌(1868-1945)목록집, 목차집』 간행

본 일본연구센터 토대연구사업단(책임자=鄭炳浩, 동대학 일어일본학과 교수)에서는 1868년에서 1945년까지 한반도 및 중국 만주지역에서 간행된 일본어 단행본과 연간물을 총목록화한 『한반도·만주 일본어문헌(1868-1945) 목록집』(총13권, 도서출판 문, 2011.2)과 『한반도·만주 일본어문헌(1868-1945) 목차집』(총27권, 도서출판 문, 2011.2)을 간행했다. 이 목록·목차집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기초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입각하여 2008년부터 전임교수 9인, 박사급 연구원 7인, 자료조사 연구원 40인에 의한 대규모 연구팀이 이루어낸 오랜 연구의 결실이다.

- 개화기 일제강점기 한반도·중국 만주지역에서 출간된 일본어 문헌을 총목록화
- 한·중·일 소장 자료의 전체적 구도를 파악한 동아시아 최초의 목록 자료집
- 한국의 기초자료집으로는 최초로 일본에서도 간행 예정
- 과거 식민지 연구 일본의 자료에 대한 의존을 벗어날 계기 마련
- 과거 100년을 통해 향후 100년간 아시아 신질서구축

『한반도·만주 일본어문헌(1868-1945) 목록집』 (총 13권)

『한반도·만주 일본어문헌(1868-1945) 목차집』 (총 27권)



◆ 최관 교수 한국일본학회 신임회장 선출

본 연구센터 소장 최관 교수는 지난 2월 12일 한양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일본 학회의 확대이사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한국일본학회는 1973년 창설된 한국 최초의 일본연구단체로서 지금까지 80여 차례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비롯한 학술행사를 개최해 오며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와 한일 간의 지적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 최대 규모의 일본연구단체이다. 최관 교수의 한국일본학회장으로로서의 임기는 2년이다.

IV. 판우번역상

일본번역원은 한국 내 일본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일번역을 통해 일본문학 소개 및 대중화에 기여해온 본 번역원장 판우(板雨) 김춘미 고려대 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8년 3월 판우 번역상을 제정하였다. 2009년 제 1회 판우 번역상 시상식에 이어 2010년 10월 제2회 판우 번역상 대상수상자로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강지현교수가 선정되었다. 선고위원으로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윤상인 한양대교수, 정병호 본 연구센터 부소장이 참여하였다. 강지현 역 『깃펜샤 잇쿠 작품선집』(소명출판, 2010)은 에도 시대 서민 소설인 원작의 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훌륭히 번역하여 학술적 기여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우번역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소정양식의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접수를 받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V. 해외 교류기관 소개

남개대학 일본연구원



남개대학 일본연구원(南開大學日本研究院)은 현재 중국내의 대학 교육기구 중 유일하게 일본연구와 수준 높은 일본연구자 육성을 목표로 하는 독립된 기구이다. 본 연구원은 1964년에 설립된 남개대학 역사연구소 일본사연구실과 1988년에 설립된 남개대학 일본연구센터를 모체로 하여, 2003년 4월 설립되었다. 또한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중점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 “중국의 일본연구 거점”이면서 중국 교육부의 일본문제 전문가팀의 좌장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본연구원은 남개대학의 국가 중점학과인 세계사, 세계경제 및 국제정치의 세 학과와 연계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일본역사문화연구부, 일본경제연구부, 일본정치 및 대외관계 연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전임연구원 14명, 겸임연구원 40여명이 소속되어 있고 또 국내외로부터 많은 저명한 학자들을 객원교수로 초빙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건실한 학술연구를 수행하여 수많은 국가 및 성(省)과 부(部)급의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다. 이제까지 본 연구원은 누계 200여부문의 저작물을 출판하였고, 그 중 51항목이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업적 외에도 본 연구원은 『남개일본연구총서(南開日本研究叢書)』(이미 출판된 것은 37종류이다)와 『남개일본연구』의 출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일본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총서 10권을 출판하여, 정치·외교·사상·문화·사회·교육 등 각 방면에서 일본 근대이래의 역사를 고찰·검증하였다. 현재 교육부가 공모한 중대연구과제인「근대일본의 대중인식(對中認識) 및 행동선택」이라는 프로젝트의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일본연구의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으로서 일본사(역사학)·일본경제(경제학)·일본정치·외교(법학) 전공의 석사 과정과 일본근대사·일본사회사·일본문화사·일본외교사와 경제학에서의 일본경제전공의 박사 과정을 모집하고 있다. 본 연구원은 대학원생에게 적극적으로 양질의 연구와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북경대학의 현대일본연구센터, 복단(復旦)대학 일본연구센터와 연계하여 1년에 한 번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의한 일본연구론단(日本研究論壇)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154명의 석사와 87명의 박사를 졸업시키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였다.

본 연구원은 오픈된 경영을 하고 있고 국내외 학자를 공동연구, 학술회의, 강연 등에 초빙하는 한편,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사상문화강좌」를 열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한국, 홍콩 등의 국가와 지역의 다수의 대학 및 연구기구와 우호적인 학술교류관계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남개일본연구총서』(이미 간행된 37종류), 일본연구원 기관지인 『남개일본연구』를 출판하고 있다.